

재확인된 지정학적 유가 단기 상승의 “끝”

- ▶ 2018년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상승을 주도했던 미국 / 사우디 / 러시아는 올 해 중순 이후 방향성 확실히 바뀔음. 금번 사우디/러시아 증산 합의 발표와 빈살만의 ‘확인사살’에서도 확인됨. 유가상승 지속 어려움

“Mr. Everything” 이란 이슈에 못을 박은 한 마디

사우디 왕세자 "이란 제재 대비해 산유국들 증산 중"

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6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“석유수출국기구(오펙-OPEC)는 유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”며 “미국의 대(對)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감소분 이상을 증산하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 그는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지난 알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하루 약 150만배럴씩 증산하기로 했다”며 이는 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의 수출량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규모로 예상했다. 전문가들은 이란 수출량이 최소 70만배럴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. (하락)

자료 : 이데일리(2018년 10월 6일), SK증권

사우디는 이미 4분기 신규유전 2개 지역에서 생산 시작함

Saudi Aramco to have more oil output capacity from two fields in fourth quarter: source

State oil giant Saudi Aramco will bring new crude output capacity of some 550,000 barrels per day (bpd) online in the fourth quarter from two fields - Khurais and Manifa - giving it the ability to boost production if there is demand, a source said. (중략) Saudi Arabia currently pumps around 10.5 million bpd and will quietly add extra oil to the market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to offset a drop in Iranian production. (하락)

자료 : Reuters(2018년 9월 28일), SK증권

-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연말 “2018년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강세” 의견을 개진한 뒤, 중순부터는 해당요인의 소멸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. 즉, 하반기에서는 더 오르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죠
- 이유는 사실상 지정학적 상승을 견인했던 사우디(Mohammed bin Salman, 이하 MBS)와 미국(트럼프 대통령)이 중순부터 급작스럽게 스탠스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죠
- 이와 함께 실제 하락세에 접어들던 유가는 9월부터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결국 연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. 상반기 지정학적 이슈의 메인이었던 이란 제재가 재차 부각되는 분위기였는데요
- 결국 “Mr. Everything” MBS가 나서서 한 마디를 했네요. 이란 제재로 물량 줄어든다면 그만큼 증산을 하겠다는 소식입니다

- 이는 사우디에서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. 지난 9월 말 열린 알제리 회의에서 OPEC과 non-OPEC의 수장 격인 사우디와 러시아는, 이미 미국의 의도대로 동반 증산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
- 양 국의 석유장관인 칼리드 알 팔리(Khalid al-Falih)와 알렉산더 노박(Alexander Novak)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이니, 당연히 흘러 들을 뉴스는 아니었고 할 수 있습니다
- 알제리 회의에서는 양국이 합동 +50만b/d 증산을 이야기했다고 보도되었는데, MBS는 그보다 많은 +150만b/d를 언급했습니다. 참고로 이란의 감소물량은 -70만b/d 예상 중입니다
- 특히 사우디는 이미 Khrais와 Manifa라는 두 지역에서 신규유전 가동이 4Q에 시작되고, 아마 +55만b/d, 최대로는 +200만b/d를 뿜아낸다고 발표했으니 여러모로 참일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죠
- 미국, 사우디, 러시아 입장을 확인해도 유가베팅이 가능할까요?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→ 매수 / -15% ~ 15% → 중립 / -15% 미만 → 매도

